

『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최유희 의원입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
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
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
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하는
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, 최근 몇 년간 공제회 내
부 직원간 갈등 심화, 자본잠식으로 인한 기금고갈 문제
등으로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
-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이나 학교안전 전
문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장 임명이 필요했으나, 지
난 1월 말 교육감께서는 오랜 기간 수행비서로 본인을
수행했던 학교안전과 관련성이 없는 측근을 이사장에 임

명한 바 있습니다.

- 신임 이사장은 학교안전 관련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 않은 신임 이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갑자기 도착하거나 해당 추천서를 이사장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정황도 나타나는 등 임명과정 및 절차도 부적절하였습니다.
- 사무국장 채용 역시 공개채용하도록 한 인사규정과 달리 교육감 추천전형으로 진행하거나 내부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짧게 올리고 삭제하는 등 지원자를 일부러 줄였으며, 전현직교육청 인사로 심사위원 비율을 조절하여 채용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.
- 결국 학교안전공제회를 이끌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퇴임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하여, 공개채용 인줄 알고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기관운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과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.
- 이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채용 비리 근절 및 기관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익감사청구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